



산동성 농업의 실상과 한국농업에 대한 시사점

(2002/3/4~3/9)

김청룡 팀장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판매총괄)

1. 산동성의 농업개황

산동성의 규모는 우선 남한면적(99,300km²)의 1.6배나 되는 큰 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면적의 3%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면적보다도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광활한 대지와 한나절을 달려도 산과 같은 지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 압도당하게 된다. 농업중심의 쯤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등 기간도로의 정비에도 상당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봄가뭄으로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으나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오고 있는 관

정시설로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농업과 관련해 위와 같은 풍부한 기초자원에다 최근에는 세계도처(40여개 국가)로부터 25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유치를 통해 토양개량, 농업기반과 관개시설의 구축, 첨단기술과 장비들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 힘입어 산동성 생산 농산물은 해외수출은 물론 국내 쯤간의 수출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며, 농업부분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2000년도에는 쯤의 농산물(부산물 포함) 수출액이 35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점에서 산동성 농업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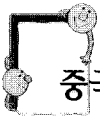
〈산동성 지역개황〉

인구	90.79백만	농촌지역	전체면적의 73.6%
농업인구	36백만	1인당 경지면적	0.33ha
지역구분	17개 자치도시	중국전체면적비중	3%이하
면적	156,700km ²	연평균 기온	11~14℃
연평균 강수량	550~950mm	평야지역	84.6%

생산작물의 유별 개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량작물로는 보리, 옥수수, 고구마, 콩, 수수, 기장 등이 주요 작물인데 특히 겨울보리의 경우 4백만ha에 생산량은 21백만톤 정도이며 관개시설지역에서의 생산단수는 ha당 6~7.5톤에 이른다. 주로 사료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는 2.7백만ha에서

약 15백만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0.5백만ha에 3,500만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과일·채소류 산업도 최근 급속한 발전을 기하고 있다. 최적의 기후조건을 바탕으로 사과, 배, 산사, 복숭아, 살구, 서양자두, 체리, 감, 대추야자, 석류, 포도, 딸기, 키위, 밤, 호두, 무화과 등의 과실류의



재배면적은 764,300ha이며 생산량은 1,000만톤에 이르고 있다. 한편 채소류는 지역별 특성화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은 양배추(차조우), 양파(장끼우), 생강(라이우), 마늘(창산), 온상골파(소광), 고추(깡조우), 순무(웨이산) 등이다. 최근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178만ha에 이르며 생산량은 7,260만톤 정도이다. 이러한 농산물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해 대형재배단지의 조성과 대규모 도매시장과 저장시설 등 생산 및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환금작물로는 땅콩, 목화, 담배, 황마, 의료용 허브 등이 있으나 땅콩과 목화가 9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땅콩은 재배면적 90만ha에 350만톤, 목화는 점감하고 있지만 135만ha에 10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축산부분은 소 1,000만두, 돼지 2,700만두, 양 2,800만두에 육고기 생산량 56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계란 370만톤, 우유 7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900만개의 축산·가축 사육농장이 있으며 4,000여개의 축산기술지도센터가 선진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기술발전과 축산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해외기술의 도입은 물론 해외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축산물수출에 따른 총수익이 13억불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수산물의 경우도 축산물에 버금가는 11억불의 수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700만톤 수준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동성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동북성 중 1인당 소득도 매우 높은 주요省去 속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동성의 농업동향

산동성의 농업부분도 '70년대말부터 실시된 농촌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신선채소류를 비롯한 곡류,

과일류 등의 생산·유통구조가 급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산동성도 '80년대 중반이후 곡물위주에서 채소 등 원예작물로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90년대 말 이후 시장원리에 근거한 농업정책을 전개하면서 채소, 과일류에 대한 품질개량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산동성농업과학원의 조직구조와 사업영역을 보면 최근 산동성 농업의 역동성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19개의 분과에서는 작물별로 바이오테크를 개발지원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센터에서는 식품, 종자, 원료,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품질검사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9개 실험센터에서는 물론 식물병충해방제연구, 우량종자개발을 위한 생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식물내 병과 독소를 제거하는 신기술개발이 궤도에 올라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 유기비료를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동물 우량종개발을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과감한 실험우량종의 도입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과 기술개발·지원을 바탕으로 농산물유통부분의 인프라구축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곳곳에 생산 및 유통기지를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산지별 개설·운영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상당한 궤도에 올라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금년 4월 세계채소박람회를 개최하는 산동성 수광시의 경우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이 국내 주요소비지에 정착된 도매시장의 몇배 규모에 이르는 것은 물론 '96년 채소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의 수행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특히 '87년부터 전국 주요도시의 채소유통체제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비지와 산지, 농업구역과 생산기지 등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유통 기반시



설의 확대 구축은 중국의 발전과 변화를 예견한 정책으로 농산물 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과수의 경우에도 각 수출지역별로 수입국의 소비행태와 수준에 맞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수확후 연중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저장관리, 즉 수확후 관리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8년전에 유고의 기술을 도입해 건설했다는 저장시설의 구조가 '90년대 중반 국내에 건설운영중인 창고보다도 더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연태시에 위치한 과일이나 우유 가공공장의 규모와 시설 등 고려할 때 생산부분에서 agribusiness영역까지 일관체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40년 역사의 사과생산으로 중국내 최고의 사과역사를 자랑하는 소도시 지하시는 사과생산량이 국내 사과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 100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무공해 사과, 왜성대목과 같은 수형의 관리, EU로의 수출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과의 품위가 높아 90% 이상이 식용으로 총당된다고 한다. 1958년 설립된 봉래시 과일재배조합인 한 유한공사의 저장량 9천톤이나 되며, 수출량이 20천톤을 넘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생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과의 재배품종 중 후지 구성비가 중국평균 약 40% 수준이나 산동성의 경우 70%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앞으로 국내와의 경쟁이 어느 정도 심각할 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이다.

최근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대규모의 과일, 채소류 수출단지의 건설도 놀라지만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수출농산물의 경우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유기농법의 개발과 적용, 유기퇴비의 조제 활용, 천적을 이용한 농법의 적용 등 국내의 친환경적인 농법의 상당부분이 이미 일반화 되어 있음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3. 우리농업의 과제

얼마전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대과, 사과, 오이, 토마토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평균적인 개념에서 다소의 품질경쟁력은 우위에 있을 지 모르나 가격경쟁력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총 생산량에서 중국의 점유비(배 45~50%, 사과 35~40%, 마늘 60%, 감귤 35% 등)를 보면 이러한 평균적인 개념의 품질경쟁력이 우위라는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한국농업의 세계화와 진로 모색을 하자는 측면에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의미에서이다.

산동성의 단면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을 지 모르나 이제 우리의 농업관련 수출입정책도 관세체계, SG, 동식물 및 식품 검역,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밀수대응 등의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품질과 마케팅력으로 중국을 개발하고 아울러 농업부문에 대한 대중국 투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대외수출을 위한 전략 품목의 선택과 집중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최근 중국의 개방정책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기심해 지고 있다.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 이후 현재 13억 인구중 외국의 고급브랜드를 선호하는 최상층을 800만명, 문화생활과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부유층은 8,000만명, 도시인구의 약 60% 정도를 중산층으로 보면 약 2억 5,00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이 샤오캉(小康)단계의 인민으로 외국기업들의 주된 마케팅 대상이라고 한다. 우리의 고품위 농산물을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없을까하는 의문의 답이 앞으로 우리농업의 살길이 아닐까